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 Study for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in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이상현 · 윤용갑

Sang-Hyun Lee · Yong-Gab Yun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Dep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

In Oriental Medicine, Atopic dermatitis(AD)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Naesun(奶癬), Taesun(胎癬), Taeryumchang(胎斂瘡), Eczema(濕疹), Seupchang(濕瘡), Samanpung(四臂風), Chimumchang(浸淫瘡).

The Basic Prescriptions which have been used for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are saengryusamultang(生料四物湯), Onchungeum(溫清飲), Seungmagalgeuntang(升麻葛根湯), Hoichunryangkyuksan(回春涼膈散), Doghengsan(導赤散), Pyungweesan(平胃散), Heungbangpaedoksan(荊防敗毒散), Goomigangharltang(九味羌活湯), Baekhotang(白虎湯), Gaegyutang(桂枝湯), Yukmigihiyuantang(六味地黃湯).

AD can divide three groups, Acute-Type, Semiacute-Type, Chronic-Type, according to it's condition. This study shows that it can be applicate Seungmagalgeuntang(升麻葛根湯), Hoichunryangkyuksan(回春涼膈散), Doghengsan(導赤散), Heungbangpaedoksan(荊防敗毒散), Goomigangharltang(九味羌活湯), Baekhotang(白虎湯), Gaegyutang(桂枝湯) for treatment of Acute-Type, Pyungweesan(平胃散) for treatment of Semiacute-Type, and saengryusamultang(生料四物湯), Onchungeum(溫清飲) for treatment of Chronic-Type.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saengryusamultang, Onchungeum, Seungmagalgeuntang, Doghengsan, Pyungweesan

I. 緒 論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eczema), 아토피습진(atopic eczema), IgE 피부염(IgE dermatitis)이라고도 불리우며, 심한瘙癢感, 紅斑, 浮腫, 滲出과 부스럼 딱지를 특징으로 하는 慢性 濕疹性 皮膚疾患이다. 주로 幼兒와 小兒에 발생하는 흔한

慢性 再發性 皮膚炎으로 搔痒症이 심한 濕疹이 발생하며, 아토피 질환의 過去歷이나 家族歷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내며, 特異한 檢査 所見이 없어 臨床樣相을 綜合한 診斷指針에 依據하여 診斷한다.^{1,2)}

대개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가려움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급게 되면 가려움증이 發疹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려움증을 야기하는 惡性 循環을 하게 된다. 急性의으로는 경계가 불확실한 紅斑性 癩丘疹이 鱗屑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심한 경우 浮腫이 올 수 있으며, 糜爛과 痂皮가 보이

* 교신저자: 윤용갑,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Tel: 063-850-6834, Email: yunyg@wku.ac.kr

게 된다. 긁기 때문에 擦傷이 오게 되고, 포도상구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고, 膿疱, 痂皮가 발생한다. 慢性的으로는 피부를 반복해서 긁기 때문에 苔癬化 현상이 나타나며, 통증이 동반된 균열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복적인 자극으로 色素沈着이 발생한다.³⁾

韓醫學 文獻에서는 奶癬, 胎癬, 胎斂瘡, 濕疹, 濕瘡, 四彎風, 浸淫瘡 등의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⁴⁾, 《黃帝內經》⁵⁾에 浸淫, 《金櫃要略》⁶⁾에서 浸淫瘡이라 한 以來로 《諸病源候論》⁷⁾에서는 小兒의 面部에 癬皮가 甲錯되고 乾燥하게 되는 것을 乳癬이라 하였고, 吳謙의 《醫宗金鑑》⁸⁾에서는 奶癬을 胎斂瘡이라하여 가려워 白屑이 일어나는 乾斂과 가려움이 심하여 黃水가 浸淫하여 퍼져가는 濕斂으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金等¹¹⁻¹⁵⁾의 논문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急性期, 亞急性期, 慢性期로 구분하여 急性期에는 濕熱이 우세하여 分비물이 많고 피부가 붉으며 발병이 급격하고 열감, 수포, 농양, 구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清熱利濕해야 하며, 亞急性期에는 脾虛濕盛하여 발적이나 수양성 분비물은 적고, 홍반, 구진, 락설이 나타나므로 健脾除濕해야하며, 慢性期에는 陰虛血燥하여 피부가 비후해지고 흑색이며 까칠까칠해지는데, 이시기에는 滋陰養血潤燥하는 治法을 쓴다했다.

1991년 최,채¹⁰⁾의 아토피 피부염에 關한 臨床的 연구 이래 아토피 피부염에 關한 洋韓方 文獻, 임상 및 실험에 關한 논문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된 處方에 대한 方劑學的 觀點에서 研究된 바가 없어서 著者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42편의 논문에 수록된 38종의 처방을 대상으로 기본처방을 중심으로 한 처방내용 분석과 아토피 피부염의 진행양상에 따른 처방 분류를 통하여 일정한 근거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다.

II. 本論

1. 研究方法

1991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關된 논문 42편¹⁰⁻⁵²⁾에 수록된 38종의 처방에 대하여 기본방을 중심으로 한 처방분석과 질병의 진행양상에 따른 기본처방 분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아토피 피부염치료 처방의 기본방 분석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關된

논문 42편에 수록된 38종의 처방에 대하여 기본방을

중심으로 한 처방분석을 시도한 결과 <표 1>과 같은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었다.

<표 1> 아토피 피부염치료 처방의 기본방 분석

基本方	活用方
生料四物湯	滋燥養榮湯, 加味潤燥湯, 當歸飲子, 加味當歸飲子
溫清飲	加味溫清飲, 柴胡清肝湯, 荊芥連翹湯
升麻葛根湯	清熱解毒湯, 升麻湯, 升麻胃風湯, 椒甘湯, 加減升葛湯
回春涼膈散	防風通聖散, 清上防風湯
導赤散	疏風導赤散, 消風散, 連翹飲
平胃散	平胃散 加 黃芩 黃連, 內消和中湯加味方
荊防敗毒散	清肌散, 十味敗毒散, 仙方敗毒散
九味羌活湯	疎風解毒散
白虎湯	消風散
桂枝湯	桂枝加黃芪湯
六味地黃湯	荊防地黃湯
기타	生血潤膚飲, 草薢滲濕湯, 熱多寒少湯

2) 生料四物湯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치료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生料四物湯	生地黄 赤芍藥 川芎 當歸 防風 各0.3	治諸瘡	四物湯 + 防風, 黃芩, 薄荷 (祛風清

	黃芩 薄荷 各0.2		熱)
滋燥養榮湯	當歸2.0 生地黃 熟地黃 白芍藥 黃芩 秦芃 各1.0 防風 甘草 各0.5	血虛生風에 서 熱感, 發赤을 檢하는 것	生料四物湯 + 秦芃, 生甘草 (清熱)
加味潤燥湯	熟地黃 生地黃 白芍藥 枳母 黃芩 秦芃 玄參 各1.5 胡麻子 防風 浮萍草 各1.0 甘草 0.5	아토피 성염 환자 中에 營氣가 不足한 경우	滋燥養榮湯 + 知母, 玄參, 胡麻子, 浮萍草(祛風 潤燥 清熱)
當歸飲子	當歸 赤芍藥 川芎 生地黃 防風 荊芥 白蒺藜 各1.2 何首烏 黃芪 甘草 各0.5	治遍身疥癬 腫瘍 流膿	生料四物湯 - 黃芩, 薄荷 + 何首烏白(補血) + 白蒺藜, 荊芥(祛風 止痒) + 黃芪, 炙甘草(補氣)

※ (+)는 加味 (-)는 加減, 아라비아 숫자는 錢을 표시함.

3) 溫清飲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藥物	主治	備考
溫清飲	當歸 白芍藥 熟地黃 川芎 黃蓮 黃芩 黃栢 梔子 各1.5	治婦人經水 不住 或如豆汁 五色 相雜 面色 萎黃 臍腹 刺痛 寒熱 往來 崩漏 不止	四物湯 + 黃連解毒湯
加味溫清飲	當歸 乾地黃 各1.0 白芍藥 川芎 黃芩 0.75 黃蓮 黃栢 山梔子 各	완고한 皮膚점막질환 특히 皮膚 소양증, 만성습진, 皮膚염, 담마진, 베체트	溫清飲 + 連翹 荊芥 薏苡仁

	0.5 連翹 荊芥 各0.5 薏苡仁 1.25	중후군	
柴胡清肝湯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黃蓮 黃芩 黃栢 梔子 連翹 甘草 桔梗 牛蒡子 天花粉 薄荷葉 各1.5 柴胡2.0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고조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	溫清飲 + 連翹, 牛蒡子, 薄荷, 柴胡, 桔梗(清熱) + 天花粉, 炙甘草(生津)
荊芥連翹湯	當歸 白芍藥 川芎 熟地黃 黃蓮 黃芩 黃栢 山梔子 連翹 防風 薄荷 荊芥 甘草 枳殼 各0.75 柴胡1.0 白芷 桔梗 1.25	축농증, 비염, 중이염, 비후성 비염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溫清飲 + 清上防風湯 + 桔梗枳殼湯 + 連翹, 薄荷, 柴胡(清熱) + 荊芥, 防風, 白芷(祛風)

4) 升麻葛根湯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清熱解毒湯	升麻 2.0 生地黃1.5 黃栢 赤芍藥 牡丹皮 0.7 葛根 黃蓮 黃芩 桔梗 梔子 連翹 甘草 0.5 生薑 1.0	治吐衄血	升麻葛根湯 + 黃連解毒湯 + 生地黃, 牡丹皮, 桔梗, 連翹 (清熱)
升麻湯	升麻 大黃 微炒 黃芩 去黑心 枳實 麩炒 白芍藥 各1.0 當歸 炙甘	治心有風熱 浸淫瘡遍體	升麻葛根湯 - 葛根

	草0.5 燈心 一握		
升麻胃風湯	升麻2.0 甘草1.5 白芷1.2 當歸 葛根 蒼朮 各1.0 麻黃0.5 柴胡 藥本 羌活 黃柏 草豆久 各0.3 蔓荊子 0.2 生薑 大棗 各1.0	治胃風面腫	升麻葛根湯 - 白芍藥
椒甘湯	川椒皮 甘草 各4.0 葛根 升麻 1.5 黃芩 黃連 1.0	濕敼에 해 당하는 濕 熱型	升麻葛根湯 - 白芍藥
加減升葛湯	葛根5.0 升麻 白芷 桂枝 桔硬2.0 白朮 蠶 黃芪 1.5 甘草 0.5	易虛易實한 小兒와탕약 복용에 거 부감이 있 는 경우	升麻葛根湯 - 白芍藥

	木通 細辛 各1.0 當歸 川芎 白芍藥 連翹0.7 防風 石膏 薄荷 黃芩 0.6 梔子炒 麥門冬 桔梗 大黃 辛夷 0.5 川椒皮 0.3		門冬, 辛夷, 川椒皮
清上防風湯	防風1.0 白芷 蓮翹 桔梗 各0.8 片芩 酒炒 川芎 各0.7 荊芥 梔子 黃蓮 酒炒 枳殼 薄荷 各0.5 甘草0.3 竹瀝五匙	清上焦火 治頭面生瘡 癩 風熱毒	回春涼膈散 - 生地黃, 當歸, 赤芍藥 + 荊芥, 防風, 白芷, 川芎, 竹瀝

5) 回春涼膈散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防風通聖散	滑石1.7 甘草1.2 石膏 黃芩 桔硬各0.7 防風 川芎 當歸 赤芍 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各0.45 荊芥 白朮 梔子各0.35 生薑5片	治 諸 風 熱 或瘡疹黑陷 或風熱瘡疥 頭生白屑 面色紫赤 肺風瘡大 風癩疾	回春涼膈散 (黃芩, 桔硬, 當歸, 芍藥, 薄荷, 連翹, 梔子, 甘草) 六一散(滑石 甘草) 白虎湯類 (石膏 甘草) 調胃承氣湯 (大黃 芒硝 甘草)
防風通聖散 加味	滑石 葛根 蒼耳子 2.0 甘草 荊芥 白朮 白芷	아토피 피 부염	回春涼膈散 + 葛根, 蒼耳子, 木通, 細辛, 麥

6) 導赤散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藥物	主治	備考
疏風導赤散	生地黃 赤 茯苓 各1.0 牛蒡子炒研 白鮮皮 金 銀花 薄荷葉 木 通 各0.8 黃蓮 酒炒 生甘草 各 0.3 燈心 五十 寸	治 胎敼 瘡...胎中血 熱, 乾敼, 濕 敼 俱服 消 風導赤散	導赤散 + 赤茯苓, 燈心(滲濕 利水) + 白鮮皮(祛 風止痒) + 金銀花, 薄荷, 黃連 (清熱)
消風散	當歸 地黃 石膏 防風 蒼朮炒 牛 蒡子炒研 知母 胡麻 蟬退 苦蔘 荊芥	風熱로 인 한 蕁麻疹 瘡瘍	+ 四物湯類 (當歸, 生地黃) + 胡麻仁(滋潤) + 白虎湯(石 膏, 知母,

	各1.0 木通 甘草 各0.5		甘草) + 蒼朮(祛濕 利小便) + 苦參, 蟬 蛻, 荊芥, 防風, 牛蒡子 (祛風止痒)
連翹飲	蓮翹 赤芍 藥 當歸 荊 芥 防風 牛蒡 子 川芎 梔 子 黃芩 瞿麥 木通 生乾 地黃 瓜蒌根 麥 門冬 甘草 各0.7 燈心0.5	治惡瘡遍身 痛痒及血 風瘡	導赤散 + 生料四物湯 + 通心飲 旋螺風 (連翹, 梔 子, 黃芩, 木通, 甘草) + 荊芥, 瓜 蒌仁, 牛蒡 子, 麥門冬

7) 荊防敗毒散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
염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清肌散	人參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桔梗 枳殼 川芎 白茯 苓 甘草 荊芥 防風 天麻 薄荷 蟬退 各1.0 生薑 3片	治癩疹 或 赤或白 瘡 痒	荊防敗毒散 + 天麻, 薄 荷, 蟬退
十味敗毒散	柴胡 櫻皮 桔梗 川芎 白茯苓 各 0.75 獨活 防風 各0.5 甘草 生姜 荊芥 各 0.25	炎症, 化膿傾 向이 있는 風濕熱 皮 疹의 初期	- 前胡, 羌 活, 枳殼 + 櫻皮 (= 樺皮)
仙方敗毒散	金銀花5.0 蓮翹2.0 貝 母1.0 天花粉2.0 穿山甲 皂	上同	+ 仙方活命 飲 (金銀花, 白 芷, 貝母, 天花粉, 穿

	角刺1.5 玄蔘 白芷 赤茯苓 各 1.0 荊芥 防風 1.0 柴胡 2.0 前胡 羌活 獨活 桔梗 枳殼 川芎 甘草 1.0 薄荷 0.5 生薑 0.5		山甲, 皂角 刺) + 連翹, 玄 蔘
--	--	--	------------------------------

8) 平胃散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치
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平胃散	蒼朮2.0 陳 皮1.4 厚朴1.0 甘 草0.6 山楂 神曲 炒 麥芽炒 各1.0	治濕滯脾胃 不能運化 積飲痞膈 不思飲食	平胃散 + 山楂 神曲 炒 麥芽炒
平胃散加味	平胃散 加 黃芩 黃蓮	濕熱型아토피	+ 黃芩, 黃 連
內消和中湯 加味方	唐山查 麥 芽炒 各2.0 陳皮 厚朴 澤瀉 各1.5 蒼朮 香附 子 枳實 半 夏 白茯苓 神 曲炒 砂仁 三稜 蓬朮 乾薑 各1.0 藿香0.8 唐 木香 甘草 各0.6 生薑 1.0 + 生地黃, 麻子仁, 茵 陳蒿, 白鮮 皮, 白鮮皮	上同	大和中飲 + 內消散 + 藿香, 木 香(行氣 健脾) + 生地黃, 茵陳蒿, 浮萍草, 白疾藜, 白鮮皮

9) 白虎湯, 九味羌活湯, 桂枝湯, 六味地黃湯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치료 처방의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消風散	當歸 地黃 石膏 防風 蒼朮炒 牛蒡子炒研 知母 胡麻 蟬退 苦參 荊芥 各1.0 木通 甘草 各0.5	風熱로 인한 尋麻疹 瘡瘍	白虎湯 + 導赤散 + 四物湯類 (當歸, 生地黃) + 胡麻仁(滋潤) + 蒼朮(祛濕利小便) + 苦參, 蟬蛻, 荊芥, 防風, 牛蒡子(祛風)
疎風解毒散	白芷 細辛 白朮 藜炒 麻黃 檳榔 當歸 生乾地黃 川芎 赤芍藥 獨活 白牽牛 微炒 桑白皮炒 蒼朮炒 枳角 炙甘草 各0.7 黑豆 70알, 紫蘇葉 5葉 生薑 5片	治遍身 瘡瘍痛	九味羌活湯類 + 四物湯 + 白朮 藜, 牛蒡子, 麻黃, 桑白皮 + 白牽牛
桂枝加黃芪湯	白芍藥 桂枝 2.0 甘草 1.0 生薑 大棗 2.0 黃芪 1.5	表寒, 表虛로 津液消耗過多	桂枝湯 + 黃芪 (補氣固表)
六味地黃湯 加味方	生地黃6.0 山藥 山茱萸 各3.0 當歸 枸杞子 白茯苓 牡丹皮 澤瀉 生薑 各1.5	血熱, 血燥한 아토피 피부부염	風熱 - 金銀花 蓮翹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加味 濕熱 - 薏

			苡仁 蒼朮 陳皮 加 味
--	--	--	-----------------------

10) 生血潤膚飲 및 기타처방을 基本方으로 사용한 경우에서의 처방 내용분석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生血潤膚飲	天門冬 1.5 生地黃 熟地黃 麥門冬 當歸 黃芪各 1.0 酒片芩 瓜蒌仁 桃仁 泥 0.5 升麻 0.2 酒紅花 0.1 五味子 9粒	燥證 (피부가 터지고 손발톱이 마르며 굵으면 일어나고 피부가 흘러 몹시 아픈 것)	固本丸類 (天門冬, 麥門冬, 生地黃, 熟地黃) 當歸補血湯 (當歸, 黃芪) + 黃芩, 瓜蒌仁, 升麻 (清熱) + 桃仁, 紅花(潤燥), 五味子 (滋潤)
生血潤膚飲 加減	天門冬 生地黃 熟地黃 1.5 麥門冬 3.0 當歸 1.0 黃芪 2.0 黃芩 瓜蒌仁 桃仁 1.0 升麻 五味子 0.5 五靈脂 1.0 金銀花 荊芥 防風 2.0 蟬退 桂枝 知母 黃柏 牡丹皮 1.0	血燥型 아토피 피부부염	+ 五靈脂 金銀花 荊芥 防風 蟬退 桂枝 知母 黃柏 牡丹皮
生血潤膚飲 加味方	麥門冬 3.0 黃耆 生地黃 熟地黃 各 2.0 天門冬 當歸 各 1.5 黃芩 酒炒	上同	+ 金銀花, 連翹, 防風, 天花粉, 紫河車 (清熱解毒, 涼血風熱)

	瓜蒌仁 各 1.0 升麻 0.75 桃仁 紅花 各0.5 金銀花 3.0 防風 蓮翹 天化粉 各 1.5 紫何車 1.0		
草薺滲濕湯	草薺 3.75 薏苡仁 3.0 白茯苓 澤瀉 黃柏 苦參 各2.25 草龍膽 1.25 牡丹皮 滑石 通草 1.0	急性的 濕熱型 利濕하는 方	+ 草薺, 薏苡仁, 白茯苓, 澤瀉, 滑石, 木通(祛濕利小便) + 黃柏, 苦參, 草龍膽, 牡丹皮 (清熱燥濕) 急性的 濕熱型에 草薺滲濕湯 慢性的 血燥型에 草薺滲濕湯 合 四物湯
四生散	錦黃耆 白附子 羌活 去蘆 白疾藜 各等分	治惡瘡	
補肺定喘湯	馬兜鈴 2.5 南星 陳皮 半夏 莎蔘 款冬花 桑白皮 各 1.25 杏仁 五味子 甘草 蘇子 紫莞 貝母 麻黃 各1.0 生薑 0.75	喘甚作響證, 寒包熱證	肺氣가 充足하면 皮毛의 衛外 機能이 정상으로 발휘되어 皮膚가 潤澤해지고 外感病에 걸리지 않으나 肺氣가 不足할 경우에는 皮毛가 榮養을 받지 못

			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신경성 피부염 등과 같은 각종의 피부병이 발생한다.
加味熱多寒少湯	葛根 1.5 黃芩, 藥本 各 2.0 蘿服子, 桔梗, 升麻, 白芷 各1.0 胡麻子 5.0 苦蔘, 荊芥, 白荷首烏 各2.0 防風, 威靈仙, 石膏, 牛蒡子, 甘菊, 蔓荊子, 白疾藜, 甘草 各1.4 便秘甚者 加 大黃 1.0	피부 건조하고 가렵고 더운 것을 참지 못하는 증상	苦蔘 胡麻散 + 熱多寒少湯
韓醫外治療法學	當歸 生地 黃牛蒡子 金銀花 蓮翹 土茯苓 薏苡仁 各 4.0 防風 2.0 禪退 3.0 川黃蓮 0.5 黃柏 2.0	諸般 아토피	

3. 아토피 피부염의 進行樣相에 따른 基本 처방분류

아토피 피부염의 進行양상을 구분해보면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進行 양상에 따라 기본방도 구분하여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아토피 피부염의 진행야상에 따른 기본 처방 분류

處方	構成內容	主治	備考
加味熱多寒少湯	葛根1.5 黃芩, 藥本 各 2.0 蘿服子, 桔梗, 升麻, 白芷 各1.0 胡麻子5.0 苦參, 荊芥, 白芫首烏 各2.0 防風, 威靈仙, 石菖蒲, 牛蒡子, 甘菊, 蔓荊子, 白蒺藜, 甘草 各1.4 便秘甚者加大黃1.0	피부건조하고 가렵고 더운 것을 참지 못하는 증상	苦參胡麻散+熱多寒少湯
韓醫外治療法學	當歸 生地黃 牛蒡子 金銀花 蓮翹 土茯苓 薏苡仁 各 4.0 防風 2.0 禪退3.0 川黃蓮0.5 黃栢 2.0	諸般 아토피	

III. 考察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癢痒感, 紅斑, 浮腫, 滲出과 부스럼 딱지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질환¹⁾으로 韓醫學에서는 奶癬, 胎癬, 胎斂瘡, 濕疹, 濕瘡, 四彎風, 浸淫瘡 등의 範疇에 속한다⁴⁾.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한 方劑를 基本方을 中心으로 처방내용을 분석해 보면, 生料四物湯, 溫清飲, 升麻葛根湯, 回春涼膈散, 導赤散, 平胃散, 荊防敗毒散, 九味羌活湯, 白虎湯, 桂枝湯, 六味地黃湯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生料四物湯, 溫清飲은 四物湯의 連繫方인데, 四物湯은 血虛의 기본적인 처방이다. `血虛`란 血의

濡養(滋潤, 營養)作用이 不足한 營養不良狀態를 말하며, 營養狀態의 低下와 이에 따른 腦, 神經, 筋肉, 皮膚 등의 代謝異常, 機能失調, 內分泌失調가 主要 病態이다⁵³⁾. 한편, 皮膚의 營養狀態가 低下되고, 皮脂의 分泌가 좋지 않아 피부가 거칠고 윤기가 없으며 건조해 지면서 가려운 증상을 한 의학적으로는 血虛生風이라 할 수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反復的이고 慢性的인 2차감염으로 병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삼출물의 양도 많아지기를 반복하고 결국 皮膚의 營養상태 低下(血虛)되어 건조해지는 증상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四物湯을 활용하면 營養分을 供給, 血行循環, 促進에 도움이 된다.

生料四物湯은 得效方에 수록된 方劑로 四物湯에서 熟地黃 대신 生地黃으로 바꾸고, 祛風清熱하는 防風 黃芩 薄荷를 配合하여 여러가지 皮膚瘡에 활용한 방제이다⁵⁴⁾. 滋燥養營湯은 當歸, 地黃, 白芍藥으로 滋養強壯하고, 黃芩, 秦凡, 生地黃, 生甘草로 消炎시켜 血虛生風으로 熱感, 發赤을 겸하는 경우⁵³⁾에 사용하고, 加味潤燥湯은 滋燥養營湯에 知母, 玄參, 胡麻子, 浮萍草를 加味한 것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중 營氣가 不足한 경우에 陰氣를 보충해 주고 祛風潤燥, 清熱除濕의 목적으로 사용한다¹²⁾하였다.

當歸飲子는 濟生方⁵⁵⁾에 처음 收錄된 方劑로 心血이 凝滯되고 風熱이 內鬱한 皮膚疾患에 활용한다. 四物湯에 補血의 何首烏, 祛風의 白蒺藜, 荊芥, 防風 및 補氣의 黃芪, 炙甘草가 配合되어 있어 血虛生風으로 인한 皮膚의 萎縮 및 皮脂腺이나 汗腺의 萎縮으로 인한 分泌減少와 皮膚의 乾燥 및 粗糠樣의 落屑 등을 특징으로 하는 老人性 皮膚癢痒症에 주로 활용한다⁵³⁾. 加味當歸飲子は 當歸飲子에서 生地黃을 乾地黃으로 바꾸고 여기에 小兒의 特徵인 `陽有餘 陰不足` 理論에 依據하여 滋陰降火하는 知母, 黃栢, 玄參을 配合하고, 성인과 달리 脾胃의 機能低下로 인하여 諸般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健脾益氣, 消食導滯, 芳香化濕하는 砂仁, 山查肉을 加味하는 한편, 피부가려움증에 따른 2차감염을 우려하여 解表透疹 清熱解毒하는 蟬退, 蓮翹, 牛蒡子, 天麻, 白鮮皮, 白僵蠶, 薄荷草, 黃芩을 配伍함과 동시에 脾胃氣分의 熱을 清解하고 涼血解毒하는 石膏를 가미하므로써 小兒들의 發散 過度로 인한 陰血이 손상됨과 氣血不調로 인한 慢性化를 防止하므로 血虛生風에 의한 癢痒症에 多用한다⁵⁰⁾. 그러므로 滋燥

養榮湯, 加味潤燥湯, 當歸飲子, 加味當歸飲子 등은 生料四物湯을 基本方으로 하여 陰虛血燥한 아토피 피부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補血養血하는 四物湯에 清熱解毒하는 黃連解毒湯을 合方한 溫清飲은 萬病回春⁵⁶⁾에 收錄된 方劑로 주로 부인의 生理不順과 崩漏에 사용할 목적으로 立方되었으나 最近에는 溫清飲이 만성적으로 경과된 완고한 피부점막질환 특히 피부소양증, 만성습진, 피부염, 담마진, 베체트증후군 등에 응용되고 있다.³⁷⁾

黃連解毒湯은 熱盛(實熱), 三焦實火의 基本處方이며, 濕熱에도 쓰는데, `熱盛(實熱)`이란 염증증상을 말하며, `三焦實火`란 全身의 炎症을 의미하고, `濕熱`이란 염증과 함께 炎症性 滲出이나 水分의 吸收, 排泄障礙를 보이는 것으로 消化器系, 泌尿器系의 炎症에서 많이 나타난다. 黃連解毒湯의 구성약물인 黃連, 黃芩, 黃柏, 梔子 모두 消炎, 解熱作用과 광범위한 抗菌作用을 나타낸다⁵³⁾. 그러므로 黃連解毒湯도 抗菌, 消炎, 解熱作用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피부의 염증에 사용이 가능하다. 盧⁵⁷⁾는 피부가 거칠고 거무튀튀하면서도 하얀 비늘이 일어나는 아토피, 건선에 진물이 없이 건조한 사람에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종합해 보면 溫清飲은 피부에 慢性的인 炎症으로 영양상태가 不良해져서 피부가 거칠고 건조한 아토피에 활용할 수 있는 方劑이며, 荊芥, 連翹, 薏苡仁을 加味하여 加味溫清飲으로 응용하기도 했다.³⁷⁾

또한 一貫堂⁵⁸⁾에서는 溫清飲에 加味한 柴胡清肝湯, 荊芥連翹湯을 활용하고 있는데, 清熱하는 連翹, 牛蒡子, 薄荷, 柴胡, 桔梗과 生津하는 天花粉, 炙甘草를 加하여 小兒의 咽喉, 肺의 慢性 炎症을 치료하고자 立方⁵³⁾한 柴胡清肝湯은 免役力이 缺乏되어 나타나는 諸般症狀에 쓸 수 있는 처방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고초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볼 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토피 피부염의 주원인인 血虛, 風熱, 血熱을 치료하는데 效果的인 處方이라 할 수 있다⁴⁶⁾. 또한 신경질을 많이 내거나, 淋巴腺炎이 있으면서 얼굴이 검은 편이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고 약간 마른 체격에 욕심이 많고 산만한 편이며, 扁桃腺이나 아데노이드가 많이 부어있는 小兒들의 體質 改善藥으로 많이 쓰인다⁵⁹⁾고 하였다.

荊芥連翹湯은 溫清飲에 清上防風湯을 合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축농증, 비염, 중이염, 비후성 비염에 많이 사용하고 얼굴이 검은편이고, 손발에 기름땀이라고 하는 진득한 땀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을 때 활용한다⁵⁹⁾. 以上의 加味溫清飲, 柴胡清肝湯, 荊芥連翹湯은 溫清飲의 加味方으로 陰虛血燥하되 清熱을 爲主로 한 方劑라고 볼 수 있다.

升麻葛根湯은 麻疹에 대한 기본처방으로 發疹을 충분히 나돈게 해서 경과를 단축하고 麻疹의 內攻에 의한 폐해를 막는다. 經도의 發汗作用(解肌透表)과 피부혈관의 확장작용도 있다. 麻疹 초기에는 薄荷, 荊芥, 防風, 蟬退, 牛蒡子 등을 加하는 것이 좋다⁵³⁾. 清熱解毒湯은 升麻葛根湯에 黃連解毒湯을 合하고, 清熱하는 生地黃, 牡丹皮, 桔梗, 連翹를 配伍한 처방으로 피부의 여러질환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⁴²⁾. 이외에 升麻湯⁶⁰⁾, 升麻胃風湯⁴³⁾, 椒甘湯²¹⁾, 加減升葛湯²¹⁾등도 升麻葛根湯의 連繫方으로 볼 수 있다.

清熱涼血의 生地黃, 清心火의 淡竹葉, 清熱利水の 木通, 清熱解毒의 甘草로 구성된 清熱利水하는 導赤散을 基本方으로 하는 方劑로는 疏風導赤散, 消風散, 連翹飲 등이 있다.

消風散은 清代의 醫宗金鑑에 風熱로 인한 담마진 瘡瘍을 치료하는데 활용된 方劑로 心熱移熱於膀胱으로 인한 口糜生瘡 小便赤澀 등에 降心火利小便하는 導赤散과, 陽明病으로 汗多煩渴 脈洪大에 쓰는 白虎湯이 配合되어 있으며, 여기에 當歸와 生地黃을 配伍하여 血燥를 滋潤한다.

苦蔘 石膏 知母는 血熱을 治하고, 血燥를 滋潤하는 當歸 地黃이 協력하고, 防風과 荊芥가 함께 祛風하여 瘡疥를 治하고, 牛蒡子 蟬退는 治風毒解瘡毒하며, 木通은 血脈의 澀滯를 通利하고 水濕을 除한다. 蒼朮은 木通과 함께 水濕을 除하는 효과를 강하게 할 것이고, 胡麻仁은 當歸 川芎과 함께 皮膚를 滋養潤燥하는 효과를 강화한다고⁵⁷⁾ 하였다.

消風散은 溫清飲보다 더 분비물이 많으면서 소양증이 극심한 경우에 활용되며, 특히 만성화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瘙痒症이 심하고 熱도 극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에 사용한다⁵⁹⁾ 했으며, 裴⁶¹⁾는 血熱을 淸消하고 血燥를 潤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열과 분비물이 많으며 소양이 심한 피부병에 활용한다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血熱, 風熱로 인한 열 때문에

白虎湯와 導赤散을 配合하였고, 가려움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苦參, 蟬蛻를 배합하였으며, 가려움이 심해서 2차감염으로 인한 삼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는 導赤散을, 피부 순환 및 삼출물 및 瘡疥를 치료할 목적으로는 牛蒡子, 荊芥, 防風을 배합하였으며,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부 삼출로 乾燥한 피부를 滋潤하고자 當歸, 地黃을 配合한 方劑라 할 수 있다. 여러 문헌에서 消風散을 風熱로 인한 피부질환에 쓴다하였지만 消風散은 방제 구성으로 보아 風熱, 風濕 그리고 血燥에도 광범위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 方劑라 할 수 있다.

連翹飲은 「得效方」에 수록된 방제로 生料四物湯, 荊芥 瓜蒌仁 牛蒡子로 血熱을 풀어주고, 導赤散(木通, 生地黃, 甘草), 通心飲(連翹, 梔子, 黃芩, 瞿麥, 木通, 甘草) 麥門冬으로 小便을 통하여 心肺熱을 내려주므로써 皮膚에 생기는 惡瘡이나 瘙癢症을 다스리며, 皮膚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에 活用할 수 있는 방제이다⁵⁴⁾.

荊防敗毒散을 基本方으로 하는 方劑로는 清肌散, 十味敗毒散, 仙訪敗毒散 등이 있는데, 피부질환을 확장, 혈행촉진을 통한 發汗으로 解熱시키는 荊芥 防風 生薑과, 祛風濕止痛하는 羌活 獨活, 利水の 茯苓, 止咳化痰하는 前胡 桔梗, 活血祛風하는 川芎, 理氣하는 枳殼 및 炙甘草 등으로 구성된 荊防敗毒散은 風寒濕의 表證(惡寒, 發熱, 頭痛, 無汗, 四肢와 軀幹의 痺痛)에 사용하는 대표 처방이며, 한냉성담타진, 습진, 화농증의 초기에 活用한다⁵³⁾.

한편, 清肌散은 피부의 癩疹, 소양증에 사용하며, 荊防敗毒散에 鎮靜作用이 있는 天麻와 淸熱하는 薄荷, 피부재생작용이 있는 蟬退를 配伍한 方劑이다⁵⁴⁾.

祛風하는 防風 荊芥 獨活 川芎, 解毒하는 柴胡 櫻皮 桔梗 生甘草, 利濕하는 茯苓, 生薑으로 구성된 十味敗毒散은 炎症, 化膿傾向이 있는 風濕熱 皮疹의 初期에 쓰이는 處方이다. 특히 防風, 荊芥, 獨活, 川芎, 柴胡는 體表血管을 擴張, 發汗, 發散을 強化하여 皮疹을 透發케 하며, 柴胡, 櫻皮는 消炎 解熱 抗菌作用이 있다⁵³⁾.

仙方敗毒湯³⁹⁾은 荊防敗毒散과 仙方活命飲을 合한 처방의 연계방으로 소아편도선염, 인후염등 염증성 질환에 活用하고자 만든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仙方活命飲⁶⁷⁾은 血熱을 내려주어 腫毒을 제거하는 四順淸涼飲(大黃, 當歸, 赤芍藥, 甘草), 일체의 癰疽腫脹을 다스리는 金銀花散(金銀花, 甘

草), 芷貝散(白芷, 貝母), 托瘡生肌하는 透膿散類(當歸, 穿山甲, 皂角刺), 鎮痛과 상처를 아물게 收斂하는 乳香散(乳香, 沒藥)에 陳皮, 天花粉, 防風을 配伍한 方劑로 볼 수 있다. 仙方敗毒散은 仙方活命飲에서 大黃, 乳香, 沒藥을 祛하고 連翹, 玄參을 加한 처방이다. 그러므로 피부에 화농성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모두 荊防敗毒散 연계방인 淸肌散, 十味敗毒散, 仙方敗毒散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濕熱型 小兒아토피 피부염이 血病으로 轉移된 燥血型 보다 많으므로 和胃健脾해서 濕熱을 없애는 平胃散을 基本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平胃散을 基本方으로 하는 方劑로는 平胃散 加 黃芩, 黃連⁶²⁾과 內消和中湯⁵¹⁾이 있다.

消風解毒散은 「直指方」에 수록된 方劑로 九味羌活湯을 基本方으로 羌活 防風 대신 獨活을 配伍하고 皮膚疾患에 사용하는 白疾藜 牛蒡子 麻黃 桑白皮 등을 配伍하여 濕熱을 없애고, 四物湯을 配合하여 淸血케하는 方劑이다. 四物湯類는 活血하고, 白疾藜 牛蒡子 獨活 麻黃 白芷 桑白皮 細辛 蒼朮 등은 濕熱을 없애주며, 枳殼 檳榔은 病邪를 排泄한다. 따라서 피부의 알러지성 과민반응을 억제하는 方劑로도 해석할 수 있다⁵⁴⁾.

防風通聖散⁶⁴⁾은 醫學入門에 治諸風熱 或瘡疹黑陷 或風熱瘡疥 頭生白屑 面色紫赤 肺風瘡 大風癩疾이라 하여 風熱毒으로 인한 諸般 皮膚炎에 쓰여 왔으며, 淸上防風湯은 古今醫鑑⁶⁵⁾에 淸上焦火 治頭面生瘡癩 風熱毒이라 하여 頭面部의 皮膚炎에 活用되어 왔는데, 回春涼膈散을 基本方으로 볼 수 있다.

桂枝湯을 基本方으로 하는 方劑는 桂枝加黃芪湯이 있는데 虛證의 삼출성 병변을 가진 아토피 피부염에 活用한다. 幼兒期 아토피 患兒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증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삼출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患兒가 체온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계속 떠는 경우가 생기고, 심하면 脫水 症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滲出을 막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으로 한다²⁷⁾라고 했는데, 過多한 發汗이나 滲出으로 인한 津液(營分)의 손실을 막고 衛氣를 강화할 목적으로 桂枝加黃芪湯을 아토피 피부염에 活用하였다.

六味地黃湯을 活用한 例도 있는데, 朴²⁶⁾은 아토피 피부염이 急性期에는 風熱, 濕熱의 양상을 나타내지만, 慢性期에는 血熱과 血燥의 양상을 보인

다고 하였다. 사춘기 이전의 초등학생에게는 血熱, 血燥의 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血熱, 血燥證은 虛勞로 인한 腎水의 枯竭로 火가 動하고 肺金이 相克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滋陰之劑의 基本方인 六味地黃湯에서 熟地黃을 生地黃으로 대체하고 滋陰기능을 倍加하고 當歸, 枸杞子를 加하여 補血작용을 보강하였으며, 風熱證이 많으면 清熱解毒하는 金銀花 蓮翹와 發散表邪去風하는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加味하고, 濕熱證이 많으면 乾脾燥濕하는 薏苡仁 蒼朮 陳皮 등을 加味하여 사용하였다.

生血潤膚飲은 「醫學正傳⁶³⁾」의 燥症(피부가 터지고 손발톱이 마르며 굵으면 비듬이 일어나고 피가 흘러 몹시 아픈 것)에 사용한 方劑로 虛勞에 쓰는 固本丸類(天門冬, 麥門冬, 生地黃, 熟地黃), 當歸補血湯(當歸, 黃芪)을 合하고, 清熱하는 黃芩 瓜蒌仁 升麻, 潤燥하는 桃仁 紅花, 滋潤하는 五味子를 配伍하여 피부의 건조증이나 손발 끝부분의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에 활용하는데⁶⁴⁾, 피부 건조증이 陰虛血燥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치료에 응용한 좋은 예라 하겠다.^{25), 40)}

葶藶滲濕湯은 祛濕利小便하는 葶藶, 薏苡仁, 白茯苓, 澤瀉, 滑石, 木通과 清熱燥濕하는 黃柏, 苦參, 草龍膽, 牡丹皮가 配合되어 있으므로 急性的 濕熱證에 활용하는데, 慢性的 血燥型인 경우에는 養血祛風하는 四物湯을 合하여 사용한다⁶²⁾.

그 以外에 補肺定喘湯⁶⁷⁾은 解表兩陳湯의 加味方으로써 肺의 機能失調를 다스리는 處方이다. 肺氣가 充足하면 皮毛의 衛外機能이 정상으로 발휘되어 皮膚가 潤澤해지고 外感病에 걸리지 않으나 肺氣가 不足할 경우에는 皮毛가 榮養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신경성 피부염등과 같은 각종의 피부병이 발생하기때문에 肺氣의 機能失調에 쓰이는 補肺定喘湯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臨床例¹⁹⁾도 있으며, 四物湯類(生地黃, 熟地黃, 當歸)와 固本丸類(天門冬, 麥門冬, 生地黃, 熟地黃)에 當歸補血湯(當歸, 黃芪)을 合하고 清熱하는 黃芩 瓜蒌仁 升麻, 潤燥하는 桃仁 紅花, 滋潤하는 五味子를 配伍한 生血潤膚飲을 피부의 건조증이나 손발 끝부분의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에 활용하는 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苦參胡麻散과 熱多寒少湯을 合方한 加味熱多寒少湯²⁴⁾을 활용한 事例도 있다. 최근 韓醫外治療法學⁶⁸⁾에서 創方한 旁題도 있다.

金等¹¹⁻¹⁵⁾은 急性期에는 濕熱이 우세하여 分비물이 많고 피부가 붉으며 발병이 급격하고 열감, 수포, 농양, 구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清熱利濕하고, 亞急性期에는 脾虛濕盛하여 발적이나 수양성 분비물은 적고, 홍반, 구진, 락설이 나타나므로 健脾除濕하며, 慢性期에는 陰虛血燥하여 피부가 비후해지고 흑색이며 까칠까칠해지는데, 이 시기에는 滋陰養血潤燥하는 治法을 사용한다 하였다.

急性的 濕熱에 清熱利濕하는 基本方은 升麻葛根湯, 回春涼膈散, 導赤散, 荊防敗毒散, 九味羌活湯, 白虎湯, 桂枝湯등이 있으며, 亞急性期에는 健脾除濕하는 平胃散이 활용할 수 있으며, 急性型에 쓰였던 方劑를 亞急性에도 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慢性期에 陰虛血燥한 경우 四物湯을 基本方으로 하는데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피부가 肥厚해지고 흑색이며 까칠까칠해지는 경우에 四物湯之劑에 清熱하는 黃連解毒湯이 合方된 溫清飲이 基本方劑를 쓸 수 있고, 오히려 피부가 갈수록 얇아지고 갈라지면서 건조해져서 老人의 皮膚瘙癢症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清熱보다는 補血養陰을 爲主로 하는 生料四物湯을 基本方으로 한 當歸飲子 등의 方劑가 활용될 수 있다. 基本方 중 六味地黃湯이 血燥에 활용된다 하였지만 三補(熟地黃, 山藥, 山茱萸) 보다는 三瀉(白茯苓, 牡丹皮, 澤瀉)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思料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병증, 원인, 병태, 진행양상 등의 특징에 따라 사용된 처방을 基本方을 중심으로 한 방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므로써 방제구성의 원칙과 약물의 加減에 따른 일정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1. 아토피 피부염의 韓醫學的 範疇는 奶癬, 胎癬, 胎斂瘡, 濕疹, 濕瘡, 四彎風, 浸淫瘡 등이다.
2. 아토피 피부염에 活用된 方劑의 基本方은 生料四物湯, 溫清飲, 升麻葛根湯, 回春涼膈散, 導赤散, 平胃散, 荊防敗毒散, 九味羌活湯, 白虎湯, 桂枝湯, 六味地黃湯 등이 있다.
3. 아토피 피부염은 進行樣相에 따라 急性, 亞急性, 慢性으로 구분되며, 急性에는 升麻葛根湯, 回春涼膈散, 導赤散, 荊防敗毒散, 九味羌活湯, 白虎湯, 桂枝湯등을, 亞急性에는 平胃散을, 慢性에는 生料四物湯, 溫清飲 등을 基本方으로 活用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것임.

參 考 文 獻

- 1)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1066-1070.
- 2) 대한피부과학회교과서편찬위원회편저. 피부과학. 麗文閣. 2001:개정4판, 161-166.
- 3) 피부과학 원색도감 편찬위원회 편. 피부과학 원색도감. 도서 출판 정담.
- 4) 顧伯華.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461.
- 5) 洪元植 編著. 精校黃帝內經素文. 東洋醫學研究員出版社. 1985:72-80, 246-248.
- 6) 宋晝功 編著. 金櫃要略廣州教典. 人民衛生出版社. 1994:221-225.
- 7) 巢元方 編著. 巢氏諸病源候論. 大成文化社. 1992:251-253.
- 8) 吳謙. 醫宗金鑑,大成文化社. 1991:459-460.
- 9) 汪昂. 國譯醫方集解. 大成文化社. 1989:420.
- 10) 최인화, 채병윤.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2(1):19.
- 11) 김남권. 加味生料四物湯의 항염증 효과와 지양고의 아토피 피부염 손상 및 止痒효과에 미치

는 영향.

- 12) 이계복. 加味潤燥湯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04.
- 13) 한재경, 김윤희. 加味當歸飲子가 아토피 동물 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1).
- 14) 공남미, 지선영. 아토피 피부염의 양한방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9;12(1).
- 15) 김미정, 이승연. 소아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문헌적 고찰(최근 중의잡지를 중심으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0;14(2).
- 16) 박민철. 아토피 피부염의 동서의학적 문헌고찰. 2001.
- 17) 황충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양방협진 연구.
- 18) 이진용, 김덕곤. 아토피 피부염 환자 67명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 1999;13(2).
- 19) 이승희, 김장현. 補肺定喘湯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관한 임상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0;14(1).
- 20) 권미원의 3명. 아토피피부염환자 20명에 대한 임상적 고찰과 ECP의 변화.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4(2):20.
- 21) 남봉수의 3명.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0;.21(4).
- 22) 김남권,문상돈. 사상체질검사를 통한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예후에 대한 임상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6).
- 23) 윤화정,고우신.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의학적인 임상분류 및 치료. 대한한 의학회지. 2001;22(2).
- 24) 정환수,이진용. 加味熱多寒少湯 투여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임상상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2).
- 25) 손정숙,최인화.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험 1례. 대한한의학회지. 2001;22(4).
- 26) 박호순,김윤범. 六味地黃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소아기 아토피피부염의 한방치험 5례. 대한안비 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2).
- 27) 정진영,김윤범. 桂枝加 黃耆湯으로 치료한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3례 - 삼출을 주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004;17(2).
- 28) 고진식. 平胃散의 濕熱型 아토피 치료 연구. 원광대학교. 2004.

- 29) 임용경 외4명.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한방적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
- 30) 장지혜외 2명.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임상적 고찰. 2005;19(2).
- 31) 송운룡. 연교의 알레르기성 염증반응 조절 효과. 원광대학교. 2002.
- 32) 노태석,노선석. 수종의 한약 추출물이 항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
- 33) 김기훈 외2명. 桑葉이 아토피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경희의학. 2004;20(1).
- 34) 김시혜 외4명. 紫草가 아토피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1).
- 35) 한규철 외2명. 牛蒡子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2).
- 36) 윤주영,채병윤. 消風散과 加味消風散의 효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경희의학. 1989;5(2).
- 37) 범희변,채병윤. 溫清飲과 加味溫清飲이 항알레르기반응과 혈액응고에 미치는 영향. 경희의학. 1990;6(4).
- 38) 노석선. 當歸飲子 水抽出液이 항알러지 반응과 마우스의 면역세포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1991.
- 39) 신동길 외3명. 仙方敗毒湯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 단핵세포의 Cytokine 분비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2;16(1).
- 40) 이현우 외2명. 生血潤膚飲 加味方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각질층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
- 41) 진경선. 清上防風湯의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 조절 효과. 원광대학교. 2003.
- 42) 류철인. 清熱解毒湯의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억제 효과. 원광대학교. 2003.
- 43) 이동규. 升麻胃風湯에 의한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 억제. 원광대학교. 2004.
- 44) 김진일,정규만.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학회지 1994;8(1).
- 45) 한경훈. 當歸飲子加味方の 처방별 (A,B)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 조절효과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2004.
- 46) 박민철,최인화. 柴胡清肝散 투여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각질층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4;25(3).
- 47) 진경선 외 5명. 清上防風湯의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 조절효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2).
- 48) 민영규 외 3명. 消風散加味方과 外治方 병용이 NC/Nga 아토피 생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1).
- 49) 김성훈 외 3명. 當歸飲子加味方과 外治方 병용이 NC/Nga 아토피 생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1).
- 50) 조용주,채병윤. 침음창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6;9(1).
- 51) 조백건 외 2명. 內消和中湯加味方の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임상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1).
- 52) 김윤희,이한철.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3;7(1).
- 53) 李相仁. 天真處方解說. 成輔社. 1987:54, 59, 60, 160, 283, 285, 286, 289, 335, 336, 359-378.
- 54) 尹用甲. 新東醫方劑. 2006:上 .1004, 1019, 1041, 1133, 下.1339, 2038.
- 55) 嚴用和. 嚴氏濟生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0:卷二.19.
- 56) 龔延賢. 增補萬病回春. ,臺北:大中國圖書公社. 1986卷下.83.
- 57) 盧永範. 복진과 정통방제학. 대성의학사. 325-330.
- 58) 矢數道明. 漢方一貫堂醫學. 醫學研究社. 1996.
- 59) 盧永範. 臨床方劑學 講座 大成醫學社. 2000:401, 414, 325-330.
- 60) 王肯堂. 六科準繩,翰成社. 1982:460-461.
- 61) 裴元植. 最新 韓方臨床學. ,南山堂. 1989:836.
- 62) 정규만. 東醫小兒科學. 행림출판사. 1985.
- 63) 虞搏. 醫學正傳. 中華醫書集成, 第二十五冊 綜合類4. 中醫古籍出版社. 1999.
- 64)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1984.
- 65) 공신찬집. 中西醫書集成 第16冊 종합류5, 古今醫鑑., 北京:중의고적출판사. 1999:149.
- 66) 東醫學研究所. 東醫外科學. 서울:여강출판사. 1994:354-355.
- 67) 世宗朝明贊. 鄉藥集成方 하. 대성문화사. 1995:24-25.
- 68)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大成醫學社.

2000:501-504.

(본 논문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9권 3
호에 게재된 논문임.)